

# 돌풍 광주 “내친김에 4연승 가보자”

광주FC, 오늘 비셀고베 상대 ACLE 4차전 원정 경기

‘3경기 연속 골’ 독보적 활약 아사니 발끝 주목  
“실점은 없다”...생애 첫 태극마크 김정민 든든  
이정효 감독 “맞춤형 전략·전술, 준비 끝났다”



광주FC가 비셀 고베를 상대로 ACLE 4연승 도전에 나선다.

광주는 5일 오후 7시 미사키공원 경기장에서 비셀 고베를 상대로 ACLE 리그스테이지 4차전 원정 경기를 펼친다.

광주는 현재 ACLE에서 놀라운 경기력으로 3전 전승을 만들어내며 조 1위를 질주하고 있다. 매 경기 화려한 공격력과 탄탄한 빌드업으로 아시아 무대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광주의 중심엔 아사니가 있다.

ACLE에서 3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며 단독 득점 선두(6골)에 오른 아사니는 알고도 막지 못하는 원발 슈팅으로 폭발적인 득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여기에 부상에서 회복한 원더골 제조기 베카까지 가세한다.

베카는 지난 ACLE 2경기는 출전하지 못했지만, 요코하마전에서 1골 1도움을 기록하며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에이스 아사니와 돌아온 베카의

콤비 플레이로 상대 골문을 계속해서 위협할 전망이다.

또한, 지난 ACLE 3차전 조호르전에서 엄청난 슈퍼세이브로 광주의 골문을 든든히 지킨 김정민의 활약도 기대요소다.

특히 김정민은 4일 발표된 11월 A매치 국가대표에 생애 최초로 발탁되는 영광을 안으며 국가대표라는 이름에 걸맞은 뛰어난 활약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된다.

상대인 비셀 고베는 2023년 J리그 우승팀이자 올 시즌에도 1위를 달리는 일본 최강팀이다.

J리그를 넘어 아시아 무대까지 제패하겠다는 야심을 품고 있는 ACLE에서도 2승 1무(승점 7)로 광주를 2점 차로 바짝 추격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고베는 울산 HD 원정에서 2-0 완승을 거두며 K리그 팀에 강한 면모를 보여줬다.

울산전 2골을 몰아넣은 미야시로 타이세이와 일본 국가대표 출신 공격수 오사쿠 유야는 광주 수비진이 가장 경계해야 할 대상이다.

피지컬이 뛰어난 베테랑 공격수 무토 요시노리 역시 광주에게 부담



광주FC 아사니가 지난달 22일 용인 미르스타디움에서 열린 ACLE 리그스테이지 3차전에서 조호르 다룰 탁킴과의 경기에서 골을 터뜨린 후 이정효 감독과 기쁨을 나누고 있다. <광주FC 제공>

스러운 존재다.

이정효 광주FC 감독은 “전략 분석팀과 함께 비셀 고베의 주요 선수들을 면밀히 파악해 대비책을 마련했다”며 자신감을 드러냈다. 연이어 J리그의 강팀들을 격파하며 일본에 이름을 널리 떨친 광주는 ACLE 3

연승을 기록하며 동아시아 최고의 다크호스로 떠올랐다.

광주가 J리그 1위 팀 비셀 고베까지 꺾고 ACLE 4연승을 기록함과 동시에 일본 팀을 모두 격파하는 기염을 토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희중 기자



지난 3일 애스턴 빌라와의 EPL 10라운드 홈 경기에서 동점골 어시스트를 한 후 곧바로 교체된 손흥민이 벤치에서 아쉬움을 표출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 조기 교체에 뿔난 손흥민

애스턴 빌라상대 복귀전 3호 도움 직후 예상밖 교체

손흥민(토트넘)이 세 경기만의 복귀전에서 3호 도움을 터뜨리고도 마음껏 웃지 못했다.

손흥민은 지난 3일 애스턴 빌라와의 2024-2025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10라운드 홈 경기에서 0-1로 뒤지던 후반 4분 브레넌 존슨의 동점 골을 도왔다.

왼쪽 날개 공격수로 선발 출전한 손흥민은 전반전에는 이렇다 할 장면을 보여주지 못했으나 후반전 첫 볼터치에서 곧바로 공격 포인트를 생산했다.

왼쪽 사이드라인 부근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슬금슬금 공을 몰며 페널티 라인까지 접근한 뒤 크로스를 올렸고, 문전으로 달려든 브레넌 존슨이 오른발로 밀어넣어 골망을 흔들었다.

손흥민의 시즌 3호 도움이자, 두 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다.

허벅지를 다쳐 공식전 두 경기에서 결장했던 손흥민은 복귀전에서 득점 포를 신고하며 ‘캡틴’의 귀환을 다시 한번 알렸다. /연합뉴스

손흥민의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다. 안지 포스테코글루 토트넘 감독은 후반 11분 히사를리송을 투입했는데, 교체 대상이 손흥민이었다.

예상치 못한 교체였는지 손흥민은 감지 손가락으로 자기 가슴을 가리키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이내 손흥민은 어두운 표정으로 그라운드를 나왔고, 자기 어깨를 토닥인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형식적으로 인사한 뒤 벤치에 앉았다.

중계 화면에는 좀처럼 분을 참지 못한 손흥민이 벤치에서 거친 행동과 혼잣말도 강하게 불만을 드러내는 장면이 잡히기도 했다.

이후에도 손흥민이 굳은 표정으로 경기를 지켜보는 모습이 포착됐다.

팀은 존슨의 동점 골과 솔란케의 멀티골, 제임스 매디슨의 썩기 골에 힘입어 4-1 대승을 거두고 자신은 세 경기만의 복귀전에서 도움을 올렸지만, 공격 포인트를 생산한 직후 당황스럽게 교체되면서 마냥 웃지만은 못한 손흥민이었다. /연합뉴스

## 오세일 감독 “강도 높은 체질 개선...더 큰 꿈 도전”



4일 열린 신한 SOL페이 24-25 핸드볼 H리그 미디어데이에서 여자부 감독 및 선수들이 이번 시즌 선전을 다짐하는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한국핸드볼연맹 제공>

2024-2025 핸드볼 H리그 미디어데이...10일 개막

### 광주도시공사, 내년 1월2일 경남개발공사와 개막전 ‘즉시 전력감’ 연지현·골키퍼 이민지 영입 전력 보강

신한 SOL페이 2024-2025 핸드볼 H리그가 오는 10일 남자부 두산과 하남 시청의 개막전을 시작으로 대장정에 돌입한다.

여자부는 12월 아시아선수권을 마친 후 내년 1월부터 막을 올린다.

한국핸드볼연맹은 4일 서울 강남구 호텔리베라 청담에서 남녀 총 14개 구

단 감독과 선수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막 미디어데이 행사를 개최했다.

2024-2025 핸드볼 H리그는 ‘열정을 던져라!’를 슬로건으로 서울과 부산, 대구, 인천, 광주, 청주, 광명, 삼척, 태백 등 전국 9개 도시를 순회하며 남자부는 정규리그 5라운드로 팀당 25경기, 여자부는 3라운드 팀당 21경기씩

치른다. 미디어데이에 참석한 오세일 광주도시공사 감독은 “지난 시즌 부진했던 성적과 침체했던 팀 분위기를 쇄신을 위해 강도 높은 체질 개선을 진행했다”며 “이번에 새로 영입한 선수와 기존의 젊은 선수들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해 플레이오프를 목표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광주도시공사는 이번 시즌을 대비해 신인 드래프트로 연지현(PV), 김지선(CB), 조연서(RB)를 영입했다. 신구 조화로 원팀을 만들어 스피드 있는 공격과 안정적인 수비로 최상의

경기력을 발휘한다는 복안이다.

특히, 주전 선수 부상 등으로 약세였던 피벗(PV) 포지션 강화를 위해 즉시 전력감인 연지현을 영입했고, 파리를 림픽 국가대표 골키퍼 이민지를 영입해 FA 박조은 이탈에 따른 빈자리를 메웠다.

광주도시공사는 내년 1월2일 오후 6시 청주 SK호크스아레나 체육관에서 경남개발공사와 시즌 첫 경기를 치른다.

한편, 2024-2025 핸드볼 H리그는 맥스스포츠TV와 에이닷, 네이버를 통해 전 경기 생중계된다. /박희중 기자

## ‘캡틴’ 손흥민, 흥명보호 복귀

14일 쿠웨이트·19일 팔레스타인과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부상에서 회복해 그라운드로 돌아온 ‘캡틴’ 손흥민(토트넘)이 2026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 예선을 치르는 흥명보호에도 다시 합류한다.

흥명보호 축구대표팀 감독은 4일 서울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5-6차전에 나설 26명의 선수를 발표하며 손흥민도 명단에 포함했다.

대표팀 감독 부임 이후 ‘젊은피’ 수혈에도 공을 들여온 흥 감독은 이번에는 독일에서 성장 중인 미드필더 이현주(하노버)를 깜짝 발탁하는 등 세대 교체 작업을 이어갔다.

이현주는 연령대별 대표로는 뛰었으나 A대표 발탁은 처음이다.

아울러 골키퍼 김경민(광주)을 비롯해 수비수 이태석(포항), 미드필더 김봉수(김천)도 처음 A대표로 발탁했다. 이태석은 2002년 한일월드컵 4강 멤버인 이용용 용인시축구센터 총감독의 아들이다.

다만, 오르단과 3차전 도중 발목을 다쳐 대표팀에서 중도 하차했던 황희찬(울버햄프턴)은 회복이 될 때 이번 중동 2연전에도 불참한다.

이번 원정을 앞두고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이재성(마인츠), 황인범(페예노르트) 등 대표팀 주축 선수 대부분은 변함없이 흥 감독의 부름을 받았다.

우리나라는 현재 북중미 월드컵 3차 예선 조별리그에서 3승 1무(승점 10)로 무패 행진을 벌이며 오르단, 이라크(이상 승점 7), 오만, 쿠웨이트(이상 승

**2026 월드컵 아시아 3차 예선**  
축구 국가대표팀 명단

- 1차전 결과: 무 (한국 0:0 팔레스타인)
- 2차전 결과: 승 (한국 3:1 오만)
- 3차전 결과: 승 (한국 2:0 오르단)
- 4차전 결과: 승 (한국 3:2 이라크)
- 5차전: 11월 14일 오후 11시(한국시간)  
쿠웨이트 (쿠웨이트 쿠웨이트시티)  
자베르 알 아흐메드 국제 경기장
- 6차전: 11월 19일 오후 11시  
팔레스타인 (요르단 암만 국제 경기장)

**FW**  
주민규(울산) 오세훈(마치다벨비아) 오현규(영국)

**MF**  
손흥민(토트넘) 이강인(파리 생제르맹)  
이재성-홍현석(마인츠) 정우영(우니온 베를린)  
황인범(페예노르트) 박용우(말린) 백승호(버밍엄시티)  
배준호(스트라스티) 이현주(하노버) 김봉수(김천)

**DF**  
김민재(바이에른 뮌헨) 조유민(사르스) 이명재(울산)  
김승현(광주) 권경원(코펜하겐 클럽) 설영우(조제조드)  
황문기(강원) 이기혁(강원) 이태석(포항)

**GK**  
조현우(울산) 김경민(광주) 이정근(대전)

연말뉴스 | 자료: 대한축구협회

점 3), 팔레스타인(승점 2)을 제치고 B조 선두를 달리고 있다.

흥명보호는 14일 오후 11시 쿠웨이트 쿠웨이트시티의 자베르 알 아흐메드 국제 경기장에서 쿠웨이트와 조별리그 5차전을 치른 뒤 19일 오후 11시 오르단 암만 국제 경기장에서 팔레스타인과 6차전을 벌인다.

이번 중동 원정 2연전을 통해 11회 연속 월드컵 본선 진출 가능성을 더욱 키우고 2026년 A매치 일정을 마무리하는 것이 흥명보호의 바람이다. /연합뉴스

## 북한, U-20이여 U-17 여자 월드컵도 제패

스페인 꺾고 8년 만에 우승

북한 여자 축구가 17세 이하(U-17)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북한은 4일 도미니카공화국 산토도밍고의 에스타디오 올림피코 펠릭스 산체스에서 열린 2024 국제축구연맹(FIFA) U-17 여자 월드컵 결승에서

스페인과 전·후반 90분 동안 1-1로 비긴 뒤 이어진 승부차기에서 4-3으로 승리했다.

북한은 2016년 요르단 대회 이후 8년 만에 통산 세 번째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렸다.

더불어 2010년 트리니다드토바고 대회 3위 결정전에서의 0-1 패배, 2018년

우루과이 대회 8강전 승부차기 패배 등 스페인과 악연도 끊었다.

스페인은 2018년, 2022년에 이어 대회 3연패에 도전했으나 북한에 무릎 꿇고 준우승에 만족해야 했다.

지난 5월 아시아축구연맹(AFC) U-17 여자 아시안컵 우승팀 북한은 월드컵에서도 정상에 올랐다. /연합뉴스

북한은 지난 9월 콜롬비아에서 열린 20세 이하 여자 월드컵에서도 8년 만에 챔피언 자리를 탈환해 여자 축구 강국의 위세를 실감케 했다.

결승전 직후 열린 시상식에서는 전일정이 대회 최우수선수(MVP)상에 해당하는 골든볼을 수상했다.

전일정은 U-17 아시안컵에서 6골을 넣어 득점왕을 차지한 데 이어 월드컵에서는 골든볼을 품에 안아 북한 대표팀 에이스로 이름을 알렸다. /연합뉴스